



전시제목 : 내가 경험한 짙은 초록 (Last Summer)

참여작가 : 서희수

전시기간 : 2024년 7월 26일 (금) – 8월 24일 (토)

전시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23 연희재 3층

- 싱가포르에서 14년동안 한국 현대미술을 전문적으로 소개한 갤러리 휴(Gallery Huue)가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서울에서 처음 개관하는 전시 기획
- 분더샷과 에이치픽스, 아트앤에디션, 현대자동차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도예작가 서희수가 4년만에 가지는 개인전으로 도예와 전혀 다른 물성의 재료인 '전통 한지'를 탐구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
- 공예라는 장르의 범주에서 벗어나 작가가 가진 잠재적 예술성을 이끌어내어 현대미술 작가로서의 예술적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디아 컨템포러리가 기획한 전시

1. 전시 소개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는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희수 개인전 <<내가 경험한 질은 초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분더샷과 에이치픽스, 아트앤에디션,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로 인지도를 쌓은 작가가, 4년 만에 가지는 개인전으로 신작 '껍질의 시간'을 발표한다. 전시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현대미술을 다루어 온 디아 컨템포러리가 서희수의 잠재적인 예술성을 끌어내고, 도예라는 장르의 한계와 범주에서 벗어나 대담하고 자유로운 시도로 다양한 매체 작업을 이어오고 있음을 각인시키고, 그의 예술적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기획하였다.

도예를 전공한 서희수는 재료의 물성과 개념에 대해 탐구하며, 설치 조형물과 페이퍼 콜라주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한 서사적 요소들을 사회적 인 서사와 관념으로 확장시켜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낸다.

디아 컨템포러리와와의 첫 개인전 <<내가 경험한 질은 초록>>에서는 오랜 기간 작가가 탐구한 '인류의 근원적 상처와 자생적 회복력'에 대해 새로운 재료로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인간의 무의식적 상처와 흔적을 붕대의 '결'로 치환하며 치유의 과정을 담아낸 <붕대시리즈>에서 이어, 나무껍질의 '결'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자연의 소멸과 생성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흔적을 껍질의 '결'로 연결시켜 나간다. 나무에서 파생된 전통 종이인 한지를 탐구하고 재료와 개념이 맺는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여 개념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맥락적 서사 구조를 정교히 구축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한편 평면 이 외에도 다각도로 예술을 바라보는 작가의 초점에 맞춰 한지가 가진 자유로운 형태의 물성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설치작품을 함께 선보이며, 20여 년간 탐구하였던 그의 작업 세계를 긴밀하게 만나볼 수 있다.

디아 컨템포러리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동시대 현대미술에 통찰력 있는 시각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가들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다채로운 예술적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 작가 소개

서희수 (b. 1973)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서희수는 홍익대에서 도예를 전공하였다. 작가는 도예가라는 고정된 범주에서 벗어나, 흙과 다양한 매체를 접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적 불안감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무의식적 상처와 자생력적 회복에 대한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재료를 관찰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은유'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탐구한 주제의 물리적 표면을 넘어 내면으로 이어져 들어가는 과정을 작품 속에 담아내며, 물리적 영역의 초월하는 관념적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그의 대표작 <붕대 시리즈>는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난다. 붕대가 가지는 의미를 붕대의 '결'에 주목하여 도자의 물성으로 재해석하여 조형설치와 페이퍼 콜라주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선보였다. 나아가 신작 <껍질의 시간>을 통해 재료의 물성과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이어나가며, 공예와 예술적 개념과 경계를 허무는 설치, 평면 작업 등으로 끊임없이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서희수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와 동 대학원 공예디자인과를 졸업하였으며,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미술치료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다함갤러리(2020), 통인갤러리(2017, 2011), 웅갤러리(2014), 관훈갤러리(2003), 뉴욕 Samuel Dorsky Museum at SUNY New Paltz(2000)에서 주요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촌공예언덕>>(홍건익가옥, 서울, 2024), <<화이트 앤솔리지>>(청주시한국공예관x서울공예박물관, 2023), <<백자전>>(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2), <<테제>>(분더샵, 2021), <<좌회전 우회전>>(영은미술관, 경기도, 2002)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소장처로는 코리아나박물관, 힐튼호텔서울 등이 있다.

3. 작품이미지



서희수

껍질의 시간

2024

Hanji on canvas

162x130cm



서희수

겁질의 시간

2024

Hanji on canvas

145.5x112.1cm



서희수

껍질의 시간_Detail

2024

Hanji on canvas

145.5x112.1cm



서희수

겁질의 시간

2024

Hanji on canvas

53x45.5cm



서희수

겹질의 시간

2024

Hanji on canvas

53x45.5cm

4. 전시 서문

구체적이고 유연한 경험

서희수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에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상처와 자연의 회복력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작가는 부패되고 소멸되어지는 것의 존재 안에서 과기하거나 환상적으로 그로테스크한 소멸의 미에 관심을 갖고, 삶과 자연 속에서 소외되고 무관심의 대상이 가진 이야기들을 사려 깊게 관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견한 것들을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재료의 선택과 작업 과정에 주목하는데, 그동안 '붕대'와 '흙'을 주재료로 삼아 인간 본연에 내재된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특히 붕대의 특성인 '결'을 가진 천 재료와 흙물을 함께 결합하여 감아올림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1,230도의 가마 안에서 소성하는 과정을 통해 붕대의 재료는 가마 불 속에서 사라지고, 흙에 붙어있던 붕대의 결만 남아 얻어진 견고하고 단단한 도자질의 결과물을 상처의 결로 표현하며 그 필요성과 의미성에 대해 조형 작업과 평면 콜라주 작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서희수의 이번 개인전 <내가 경험한 짙은 초록>에서는 그동안 작가가 다루어 온 인류의 근원적 상처와 자생적 회복력에 대한 이면성을 기반으로 탐구한 신작 <껍질의 시간>을 선보인다. 작가는 제주의 숲 중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곳자왓 숲에서 경험한 소멸성과 자생력 그리고 비밀스러운 회복력을 고찰하며, 인류 탄생 이전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과 자생적 치유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견뎌내고 자라난 바위와 같은 나무의 삶과 인간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그 교차점을 찾는다.

"저는 상처 입고 부패되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갑니다." -작가 노트

전시에는 작가가 숲에서 마주한 자연의 경외감과 생태적 순환을 받아들이고, 초연함에서 받은 위로와 인간 본질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연과의 연결 안에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애도의 시간을 가진다. 작가는 이러한 일련의 시간을 작품에 기록하였다. 신작 <껍질의 시간>은 이전의 작업에 쓰인 붕대가 남긴 단단한 '결'의 표현에 이어 나무껍질의 '결'에 집중한다. 나무껍질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다양한 표면으로 형상화하여, 껍질 안에 나약함과 더불어 시간의 축적 속에서 이면에 가지는 껍질의 단단함과 보호 그리고 순환적 자생력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재료의 물성에 대한 실험과 탐구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던 작가는 나무에서 파생된 전통 한지를 새롭게 연구하며 그의 예술적 조형미를 한층 더 확장시킨다. 기존에 반복적으로 감아올리는 작업 형식같이, 이번 작업 역시 한지를 한 겹, 한 겹 감싸듯 쌓아 올리고, 붙여 나가는 몰입 과정에서 수행의 시간을 야기시킨다. 작가는 자신이 다루는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텍스처의 변형을 가하는 실험으로 매체와 이미지 사이를 고찰하며, 재료가 가진 물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고정된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대상으로 확장하며, 예술적 표현법을 통해 자신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전시에서는 평면 작품 이외 작가적 시점으로 해석하여 보여주는 설치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평면의 틀에서 벗어난 설치작품은 생명력이 꿈틀대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숲을 경험하고, 어떠한 제약 없이 응시한 관람자의 다양한 시점에서 위치를 이동하게 한다. 그리고 마주하는 순간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예고하며, 무엇인가 기억하고 상상하게 하는 순수한 경험을 행위 하도록 한다. 작가는 설치 작품을 통해 작가 스스로가 경험하고 해석한 '질은 초록'을 마주하며 파생되는 인간의 다층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는 색이 가지는 자극이 하나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감정도 수반하는 공감각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인간 본연에 내재한 여러 본성과 무의식적 반응을 이끌어내어, 관객들이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감정의 기억을 마주하고, 새로운 지각의 확장과 사유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5. 갤러리 소개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독창적인 작가 발굴과 섬세한 기획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예술적 영감을 주며, 현대미술의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2010년 싱가포르에서 한국현대미술을 전문적으로 소개하였던 갤러리 휴(Gallery Huue)는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갤러리를 개관한다. 지난 14년 동안 싱가포르 현대미술 현장의 최전선에 서있으며, 섬세하게 기획된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과 작가를 소개하고, «ART-IST : ways of seeing», «These 테제»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작가들을 새로이 조망하고자 한다.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작가들을 후원해 온 뉴욕 예술비영리 공간인 '디아 파운데이션(Dia: Art Foundation)'의 활동에 영감을 받아 지어진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는 유행의 따라가는 예술이 아닌 그 시작점이 되는 예술에 주목한다. DIA는 고대 그리스어로 '-저너머'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DIA 컨템포러리는 단어 뜻 그대로 현대 미술의 탐험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창의적이고 신중하게 선별된 기획 전시를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 너머의 예술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미술을 관통하는 시각으로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의미 있는 예술적 대화를 유도하여 활기찬 현대미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는 성격이 다른 2개의 전시 공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먼저 첫번째 공간인 '디아 인 연희 (DIA IN Yeonhui)'을 7월 26일(금)에 오픈한다.** '디아 인 연희'는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고 문화 공간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오래된 동네와 조화를 이루며, 주민 문화를 기반으로 삶을 매력적인 문화 만들어내는 연희동의 특성처럼 경험과 예술의 등 다양성과 가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QKUmfR6abj4Ib-waxJGBhU2zrvehTg_?usp=sharing

[문의]

담당자 : 이윤정 | yoona@diacontemporary.com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23, Yeonhui-ro 11ga-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07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